

지역 소식통

익산시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선도 지역 선정

익산시 삼성동행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자체의 사업신청에 따라 시·도에서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5개 지자체 36개 읍면동을 최종 선정했다.

삼성동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복지수요와 자원이 있으며 민관협력 활성화 지역인 것은 물론 읍·면·동 복지경력이 36개월 이상인 복지동장이 배치돼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삼성동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허브화의 성공경험을 전수하고 역량강화가 필요한 후발지역의 멘토링을 통해 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전파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사업비 2,000만원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작은도서관이 내달부터 7월까지 2017년도 상반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 논술, 역사, 영어, 미술, 과학 한자이며, 성인 대상의 중국어회화, 손뜨개, 우쿨렐레, 한자공예, POP 등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공지사항 또는 전화(454-5653)나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20곳 근로자 사고예방조치 집중감독

군산고용노동지청이 관내 건설현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관로공사 등이며 휴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꾸집 등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처치,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작업발판, 안전간판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발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교통체계 개선 시급

일부 신호체계 운전자 혼선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

군산시 일부 신호체계가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시는 도로교통전문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횡단보도는 전용도로 전 주방면에서 군산대 방향으로 진출시 전용도로를 내려와 우회전 커브 바로 코앞에 설치된 관계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들이 급커브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선행차 뒤 따르는 운전자들은 전방 상황을 알지 못해 커브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기 일수이고, 이로 인해 추돌위험 등 아찔한 상황이 종종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다른 방향(군산대에서 육구를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보행자 신호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30미터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 정지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운행 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다.

이는 도로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탓으로 설계 당시 전문가들은 이곳의 횡단보도시설, 신호등 구조개선, 좌회전 대기차로 운영검토 등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김형철씨는 "대부분의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에 있으나 이 곳은 횡단보도를 한참 지나 정지신호가 있고, 보행자 신호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에도 횡단보도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원권변선 인근에 설치된 신호체계도 운전자 불편과 사고 위험을 부추

기고 있다. 한원권변선 앞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불과 30여미터 떨어진 은파순환도로 입구에 또 다른 신호체계가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한원권변선 앞 정지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은파순환도로 입구의 신호체계를 보며 보행자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사고 우려가 높다.

한 도로교통전문가는 "군산지역 일부 신호체계가 수십 년 전 교통체계로 지금의 교통흐름 및 체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설계부터 반영까지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군산시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7개 분야에 걸쳐 총 사업비 14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장터단 연안도로 주변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주변 도서 바다가에 산재한 각종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국제해양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 추진과 함께 향

후 도서지역 바다가의 경관개선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준수 해양수산과장은 "도서·벽지 바다가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해 고군산 군도의 청정 환경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어민과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오산면 야생조류 폐사체 AI '음성' 판정

익산시,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예찰지역 설정 방역 조치

익산시는 지난 9일 오산면 오산리 172-13 일대에서 폐사한 노랑부리백로를 수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익산시는 발견 즉시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9개 농가, 316,700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2월5일 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AI 차단을 위해 폐사체 발견지점에 방역띠를 설치하여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축산과 방역차량 3대, 농협 무인헬기 3대 등 동원가능한 방역장비를 총 동원하여 발견지역 주변과 반경 10km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9개 농가, 316,700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2월5일 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AI 차단을 위해 폐사체 발견지점에 방역띠를 설치하여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정관수 익산시 축산과장은 "음성으로 판정된 다행이지만 AI에 감염을 늦출 수 없으며 축산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뿐만 아니라 반경 10km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9개 농가, 316,700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2월5일 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

군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3대 교통반칙행위 집중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난폭·보복 운전, 양체운전이며, 단속 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17일(100일)까지이다. 이번 단속은 생활 속 불안을 가중시

키는 차폭 행위 및 양체운전,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단속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사고·위험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위험성·단속의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법규준수유도와 교통사고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99건), 면허정지(611명), 면허취소(677명)로 집계됨에 따라 경찰은 이동식 및 일제 합동 단속을 병행하고, 낮 시간대도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3월까지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익산시가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중 33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와 전북도, 익산시 민관합동점검반은 설 명절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황등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 2017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C등급 이하 교량을 비롯한 농업용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시설이다.

교량분야는 전문기관인 대한건설품질연구원에서 농업용저수지는 농어촌공사익산시지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시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소방서에서는 무료점검 할 계획이다.

구조적 안전성, 안전기준 적합여부, 안전진정 미비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안전에 위해 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한다.

군산=장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